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2월호  
2011

크리스마스 축제 초청합니다.



장소: 주님의 교회 (김의석 목사)

시간: Sunday, Dec 18,

4-7pm

주소: 12120 Copper Ave NE,  
ABQ, 87123



크리스마스에 날리는 종이비행기  
이경화 장로



( 13페이지에서 계속)

*Merry Christmas to Your Family from Ours*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감사 서한

9페이지



뉴멕시코 주 한인회 소식

11월16일 Thanksgiving Lunch를 6.25 참전 용사와  
김치 축제 및 1년 동안 봉사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  
을 초청하여 풍성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 \* **송당비** → 7페이지  
이정길 교수
- \* **여호수아 장군의 위대한 업적** → 10페이지  
김준호 장로
- \* **남겼나? 밀쳤나?** → 14페이지  
김정근 목사



한인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천주교 식구들도 한자리에..



**참정권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안내 및 국외 부재자 신고서에 관한 모든 서류가 한인회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인회로 방문해 주시거나 재외 선거 홈페이지 <http://ok.nec.go.kr>**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com).

를 이용해 주세요.

신청기간: 2011.11.13 ~ 2012.2.11

**단요가 기체조 강연회**가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1시반부터 2시 반까지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 **한국학교 소식**

다음 봄학기는 1월14일 토요일 10시부터 등록을 받고 1월 21일부터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웹사이트 <http://kaanm.com>에 들어가면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이선아 교장 505 - 515 -4211)

### **어버이회소식:**

12월 14일 수요일 올해 마지막 모임으로 크리스마스 겸 송년 파티를 가집니다. 다음 모임은 2012년 1월 11일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 해 동안 봉사해 주시고 사랑으로 협력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어버이회 회원님들과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한인록 소식**

그동안 기다리시던 한인록이 마무리 단계를 거쳐 한국에서부터 엘에이를 거쳐 배송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 1월부터 2월 대보름 잔치에 걸쳐 한인사회에 배포하도록 준비중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십시오.



#### **광야의 소리는**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 크리스마스에 날리는 종이비행기

이경화 제공

필자가 고안한 종이 비행기 중에는 미국 결핵협회에 해당되는 American Lung Association(ALA)의 청탁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 종이비행기가 있다. 종이접기비행기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Dart Paperplane에 한 단계 접기를 더 추가해서 파이로트 조종석이 있는 종이비행기로 고안한 것인데 비행기 이름을 ALA Delta Fighter로 정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와 함께 크리스마스 계절에 이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날려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하는 마음으로 종이 접기 안내문을 소개한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칼라 프린트가 있다면 그림에 보는바와 같은 패턴과 색깔로 디자인된 종이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프린트해서 접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그림파일을 올려 두었다. ALA의 Logo는 십자가에 수평 Bar를 더한 모양을 하고 있다. 빨간 적십자에 십자가를 겹친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크리스마스 때에 결핵예방을 위한 기금 모금으로 편지 우표 옆에 부치는 크리스마스 셀(Seal)을 만들어 사회사업을 한 것이 결핵협회가 시작했던 일임은 잘 아는 사실이다. 도면에 표시된 Logo와 표어, 협회이름에 쓰인 글자체등은 모두 엄격한 협회규정과 지시에 따라 만들어 진것임을 밝힌다. 웹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www.amazingpaperairplanes.com/AmericanLungAssociationDeltaFighter.html>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는 수단으로 종이접기 비행기가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을 필자가 수신한 편지를 통해 아래에 소개해 본다.

2009년 12월31일 새해이브날 뉴질랜드에서 보내온 E-Mail을 받은 일이 있다. 나의 종이비행기가 달력으로 출판되어 매년 크리스마스 전후를 기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베리 프로랜스 베네트란 분이 종이비행기 달력을 선물로 받고 종이비행기를 접으며 그의 딸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감사편지였다. 편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저는 평생을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 12월14일 저의 생일날, 12살 되는 저의 딸로부터 생일 선물로 2010년도 종이비행기 달력을 받았습니다. 종이비행기 접기의 재능과 정성으로 이런 좋은 제품이 나오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나라(뉴질랜드)는 새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



## USA Legal Group, Inc.

A Law Corporation  
상해법, 교통사고, 파산법 전문 변호사



**Los Alamos 와 Albuquerque 인근에 산불로 인해 ash 가 집 혹은 건물로 날아들어 왔을때 compensation 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보험회사로 부터 Los Alamos 산불이나 Arizona 산불의 연기와 재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을 받지 못하셨거나 deny 되셨나요?

**대부분의 화재보험은 외부지역에서의 재나 연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clean-up cost이나 replacement cost 를 책임지고 배상해야 합니다.**

**New Mexico Attorney: Charles Lakins**

**Donovan Kang(도노반 강): 사무실Office 505-563-5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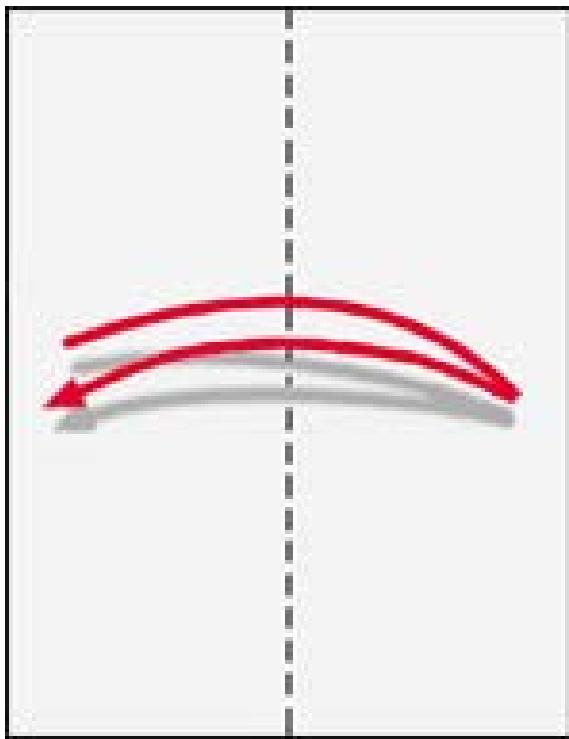
**직통Direct 505-563-5539**

는 나라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2010년 새해를 맞이한 지 55 분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의 다른 나라는 아직도 2009년에 속해 있습니다. 새해의 첫날 달력의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저의 딸과 20여분을 날리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주시는데 감사하며 우리 딸아이가 아빠를 위해 이렇게 매력적이고 마음에 쏙 드는 일년 내내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좋은 선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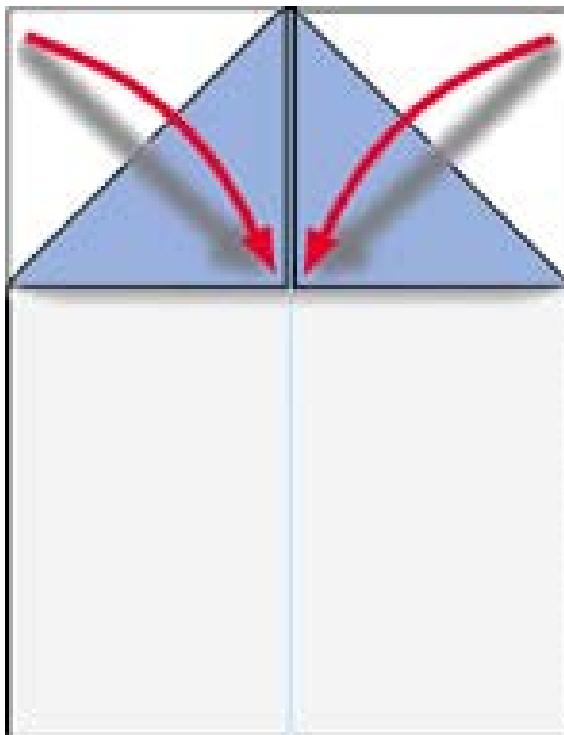
필자는 감사의 답장을 보내면서 달력에 있는 종이비행기는 나 혼자의 작품이 아니고 영국인 데빗 미첼의 작품과 합친 것이고 종이접기비행기를 달력으로 상품화 한 것은 Accord 출판사의 아이디어란 것을 알리면서 그 분의 감사편지를 덴버에 있는 Accord출판사로 전달했다.

### ALA엘타 전투기 종이 비행기 접는 방법



Step 1.

Use a sheet of 8 1/2-by-11 inch paper. Fold the paper in half lengthwise and run thumbnail along the fold to crease it sharply. Now, unfold the paper.



Step 2

Fold down the top corners as indicated by the arrows.

## Yummi House

### 雅敍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 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505) 271-8700**

###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7.95

삼선짬뽕 \$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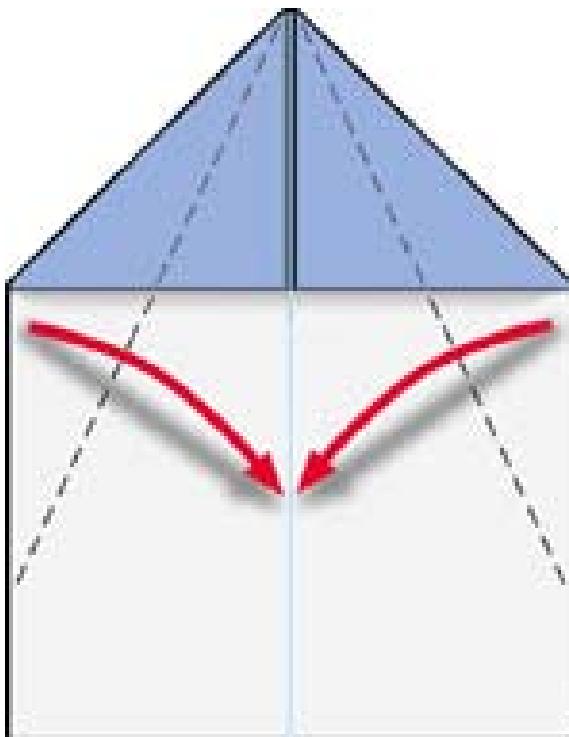
해물탕면 \$7.95

다섯가지 냉채 \$29.95

간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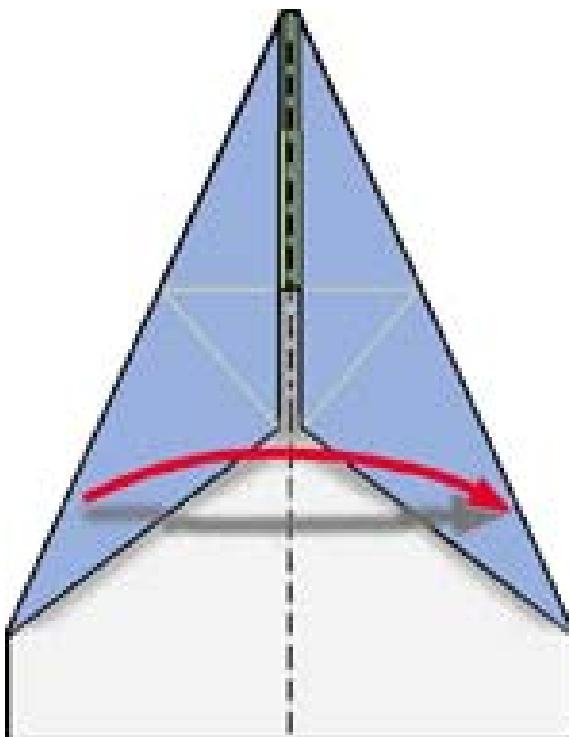
탕수우육 \$10.95

양장피 잡채 \$15.95



### Ste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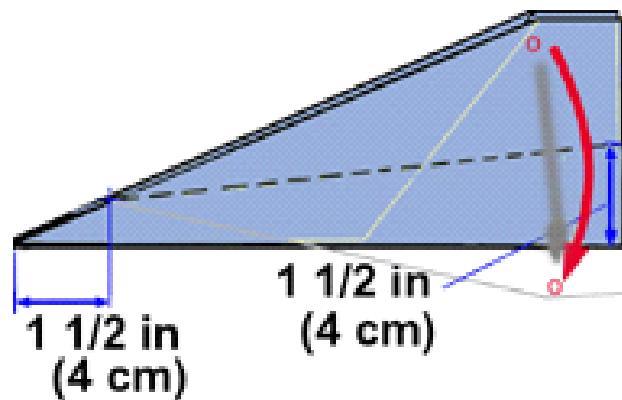
Fold the two edges toward the center line, as indicated.



### Ste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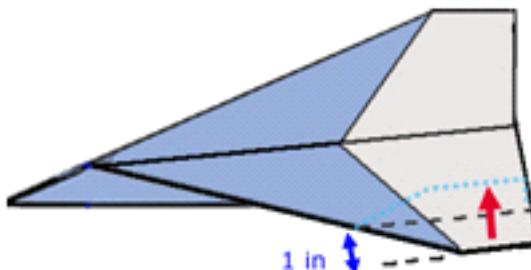
Make a valley fold in half.

Turn the plane 90 degrees as shown in figure of Step 5.



### Ste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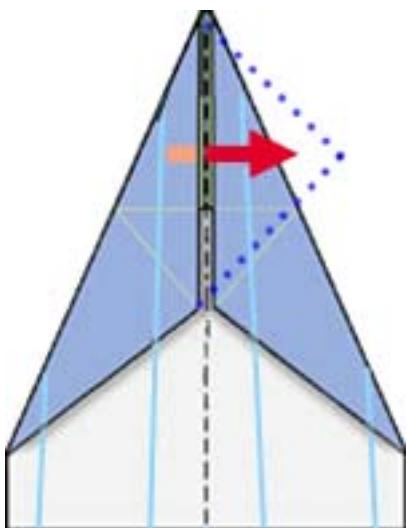
Create a wing crease that begins at the nose as sh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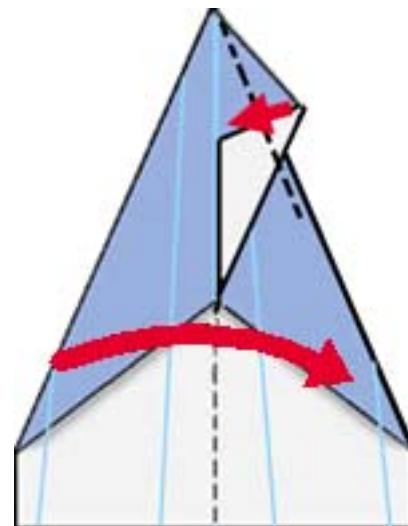
### Step 6.

Bend up the winglet as shown. Repeat step 5 and 6 for other 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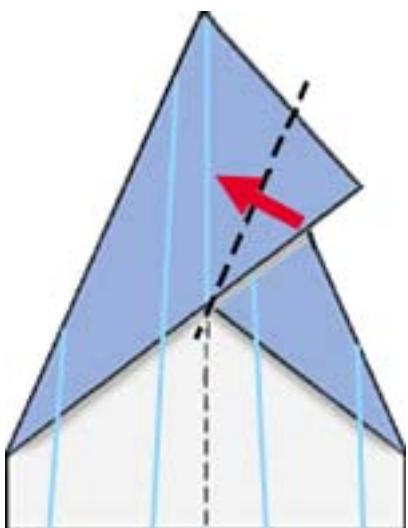
 <b>Sushi &amp; Sake</b>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Closed on Sundays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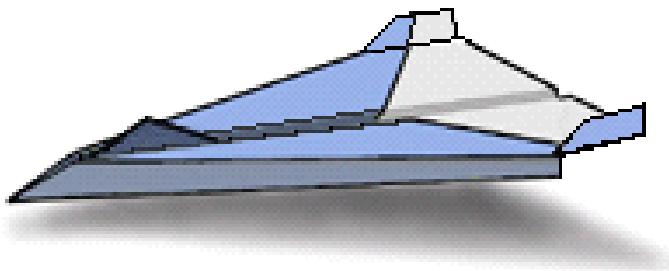
Step 7.  
Open the model and bring out the flap from the left side layer.



Step 9.  
Repeat similar folding for the upper part of the flap.



Step 8.  
Fold the triangle so that the lower edge meets the center line.



Step 10.  
Form 3-dimensional shape as shown in figure.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Delta Fighter is complete.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Mon~Sat  
10:00~6:00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 몽당비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Accord Publishing에서 발행한 2012년도 종이비행기 달력의 표지와 뒷 표지. 필자와 David Mitchell이 제공한 40종의 종이비행기가 365일을 커버하고 있다.

## HUONG THAO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 - Sat 11:00am - 9:30pm • Sun 11:00am - 8:30pm

1016 B. Juan Tabo NE  
Albuquerque, NM 87112 • (505) 292-8222

Choices: pork, shrimp, chicken, beef, \$11.25 or any combo for \$11.95  
Extra large add \$3.95    Extra noodles \$2.25    Extra Meat 2.95

# 18

**베트남 스프링롤**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com).

뾰족한 끝 부분이 많이 둇아서 거의 못쓸 정도가 된 물건을 몽당이라고 부른다. 지금이야 물건을 몽당이가 되도록 쓰는 일이 훈치 않으나, 내가 어릴 적에는 몽당이를 종종 볼 수 있었다. 둇아서 끝이 무딘 몽당붓을 사용해본 적은 없지만, 간신히 손에 잡힐 만큼 짧게 둇아 못쓰게 된 몽당연필을 버리기가 아까워 필통에 넣어두고 다니던 기억은 있다. 그리고 아주 모지자져서 자루만 남은 몽당비로 마당을 쓸다가 잘 다져진 바닥에 보기흉한 자국을 남긴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드라이브 웨이에 있는 아름드리 시카모어 두 그루는 한 해 내내 앞마당을 어지른다. 뒷마당의 산사나무, 코튼우드, 일본단풍, 폰티니아, 목련은 계절 따라 잎이나 꽃을 떨어뜨린다. 옆마당의 높게 자란 은단풍 세 그루는 늦봄에 열매를, 이른 가을부터는 잎을 떨어뜨린다. 가을이 깊어지면 견조해진 날씨가 먼지를 더 많이 일게 하고, 겨울을 채비하느라 나무도 잎을 더 많이 베린다. 게다가 오후면 어김없이 바람이 불어 사방이 어지럽다. 나는 바람이 없는 아침에 비를 들고 밖으로 나가고는 한다. 늘 하던 대로 오늘 아침에도 비를 들고 앞마당으로 나가 먼지와 낙엽을 쓸어 모았다. 쓸리는 느낌이 전과 같지 않아 자세히 살펴보니 비의 끝부분이 많이 둇아 몽당비가 되어있었다.

사람이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도구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광주에서는 아파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던 몇 가지 생활용품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부터는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골고루 갖추어야 한 것은 청소도구였는데, 주변에 나무가 많은데다가 사철 끊이지 않고 불어대는 바람 때문이었다. 진공청소기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것만해도 카펫에 가라앉은 먼지를 속속들이 빨아들이는 강력한 것은 물론, 타일 위에 떨어지는 먼지를 수시로 없애기에 편리한 코드가 없는 것까지 갖추어야 했다. 거기다 차고나 마당에서 쓰는 진공청소기도 따로 필요했다.

이곳 앨버커키 사람들은 나뭇잎이 떨어지면 블로워로 한 곳에 모은 다음, 다시 넓은 잎도 빨아들이도록 고안된 진공청소기로 거둬들인다. 수많은 생활용품을 다 갖추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 시골에 살며 쓰레기는 비로 쓸어내는 데 익숙한 나는 마당의 청소에는 비만 사용하기로 작정했다. 먼 이국 땅으로 옮겨온 직후여서, 비를 사러 낯선 곳을 헤

매고 싶지 않아 우선 옆의 팔네 집에서 쓰던 빗자루 하나를 가져왔다. 그 수수비가 서너 해를 쓰다 보니 몽당비가 된 것이었다.

세상살이가 하도 많이 변해서 내가 사는 동안 다시 몽당비를 쓰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 비는 사탕수수의 변종인 비수수로 만든 것이었다. 비수수는 1700년대 초 이태리로부터 들여와 관상용으로 정원에서 재배되다가, 1800년대 중반부터 일리노이 주에서 비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여러 주로 퍼져나갔으나 수요가 한정되고 수확하는 데에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어 재배면적은 넓지 않았는데, 1970년까지 많이 재배된 곳은 오클라호마 텍사스 뉴멕시코 콜로라도 등이었다. 일년초인 비수수는 종에 따라 다르지만 키가 2미터에서 4.5미터까지 자라며, 30 - 60센티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부채모양의 꽃송이에 열매를 맺는다. 익은 열매는 귀리와 비슷해서 가축의 사료로 쓰였고, 꽃송이는 비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시골에서는 집집마다 넓은 마당을 가지고 살았다. 마당은 타작하고 곡식을 말리는 곳이며, 벼를 엎드구미에 저장했다가 가마니에 담아 내가는 곳이다. 타작을 끝낸 후 벗짚을 쌓아두는 곳이고, 겨울에 쓸 멜나무 단을 쌓아두는 곳이다. 한여름 밤에는 모깃불을 피워놓고 대나무 평상에 앉아 더위를 식히는 곳이다. 마당은 곧 일터였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항상 말끔하게 쓸어두어야 하는 곳이었으며, 그때마다 쓰이는 것이 바로 대비였다. 이파리를 떼어낸 대의 낭창낭창한 잔가지를 엮어, 손잡이로 대 출기 하나를 가운데에 넣고 단단히 묶어서 만든 대비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몽당이가 되고는 했다.

부엌이나 토방은 수수비로 쓸었다. 수수는 식량으로 쓰거나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 재배했지만, 수수쌀을 떨어낸 수수깡도 버리지 않고 줄기와 함께 비를 만드

는 재료로 사용했던 것이다. 좁은 곳을 쓸려면 대비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수수비가 제격이었는데, 가볍고 작아서 마치 지금의 휴대용 진공청소기 같았다. 방이나 마루를 쓰는 비는 이것들과는 아주 달랐다. 한 달에 몇 번 정해두고 열리는 심리 밖의 시장에 가서 사다 쓰던 방비는 매어진 모양이며 손에 잡히던 감촉이 여간 좋은 게 아니었다. 어찌다가 몽당이가 된 방비로 얹어맞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비수수로 만든 것이었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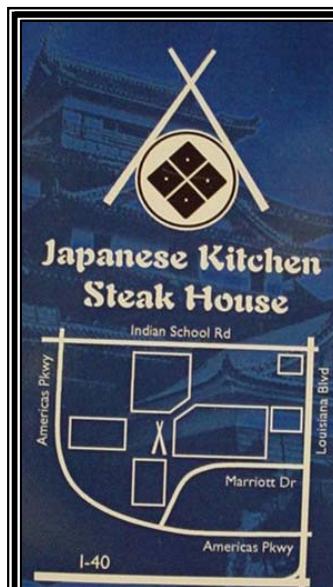
내 집에는 몽당비 말고도 뒷마당과 차고 그리고 실내에서 쓰는 비가 세 자루나 더 있다. 이것들은 자루부터 온통 비닐로 만들어졌다. 자루까지 나무로 된 몽당비는 쥐면 촉감부터 달라 손이 먼저 간다. 여러 번 쓸어야 깨끗해져서 불편하지만 정감이 넘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몽당비는 번번이 나를 고향으로 데려다 준다. 손에 익어서 쥐면 매끈하던 대비, 수수비, 방비들의 느낌을 아련히 떠올려준다. 자주 어질러지는 앞뒤마당의 청소에 비만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잘한 일이다.



**ALLSTAR REALTY<sup>LLC</sup>**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yongfre@yahoo.com



## Japanese Kitchen

###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정식(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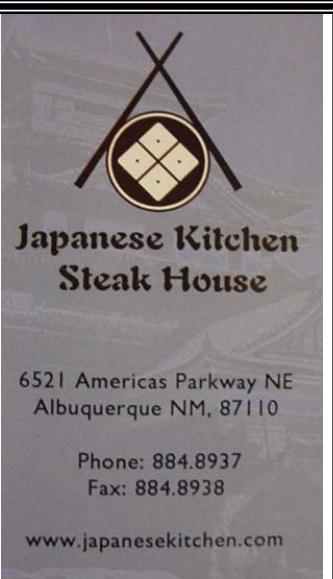
모듬정식(벤또), 해물우동, 튀김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풍지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야끼전문, 고기 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 대한민국제주

### 세계대자연경관선정감사서한



(사진: 제주도 돌하르방)

과 해외 동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파 성을 다한 결과입니다.

즉, 남녀노소 전 국민은 물론 언론과 사회단체, 정부와 국회, 각급 기관·기업, 국군 장병과 해외동포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지난 1년 여간 다사다난했던 여정을 함께 해주셨기에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벽찬 감동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소식은 미국의 CNN·MSNBC·USA투데이·내셔널 지오그래픽·인터넷내셔널 비즈니스타임즈, 영국 BBC,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지, 중국 신화통신 등 전 세계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AFP는 238억원의 정부 예산을 쓰고도 이스라엘이 탈락했다는 사실까지 보도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7대자연경관 국가로 선정되면서 수출 주도 공업국가, 전쟁 위험 국가라는 고착화된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자연이 아름다운 녹색·환경 국가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을 계기로 국가 브랜드 가치도 비약적으로 상승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앞당기는 견인차가 되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발표 후 14일(월) 중시에서 항공·호텔·카지노 등 여행·관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어떤 종목은 가격에 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강한 반증입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제주도와 대한민국이 관광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내는가는 앞으로 어떻게 챙겨 나가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범국민추진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인류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를 길이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막중한 책무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민과 더불어 국민과 해외동포, 세계시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참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에 오시는 분들이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에 감탄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하고 달라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년 여간, 위대한 세계7대 자연경관 제주 선정 도전을 함께 해주신 은혜,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늦은 가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 추진 위원장  
정운찬 올림  
제주 특별 자치 도지사 우근민

※ 세계7대자연경관 활용 실천과제, 자연보전정책에 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세계7대자연경관(불가사의)선정』 메뉴“알림마당”등록)

**KOREAN B.B.Q HOUSE**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Armani Mansour  
Licensed Sales Producer  
The Keller Agency

Allstate Insurance Company  
6321 Riverside Plaza Lane NW  
Albuquerque, NM 87120

Phone 505-898-8565  
Fax 505-898-7674  
armanimansour1@allstate.com

24-Hour Customer Service

## 여호수아 장군의 위대한 업적

김준호장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6-7절)**

벌써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왔군요. 독자 여러분들, 즐거운 성탄절 맞으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를 매달 발간하시느라 고 수고 많이 하시는 편집위원들과 또 여러 지역으로 발송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이 번호에 성경 이야기를 쓰게 된 것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성경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독선적으로 지휘하지 말고 중용을 지키며 율법을 백성들로 하여금 다 지키게 하고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라고 지시한 말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른 팔과 같은 역할을 출애굽 때부터 했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를 도우며 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훈련받은 동역자였다. 모세가 요단강 동편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85세였으니까 그동안 수없는 단련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들의 평범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좀 가혹하게(?) 처리하신 것이 아닌가도 여기에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 엄청난 과업을 맡기고 일을 시켰는데 그렇게 하시다니-----.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며 10 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였고 또 홍해바다 앞에서 보여준 전무후무한 기적은 모세를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크나큰 감명을 주었을 것이다. 그는 정말 최고의 사역자이며 선지자였는데도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 민수기 20장 7-12절에 보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다. 즉 회중을 모아놓고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앞에 서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성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 내리쳤던 것이다.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목 말았던 자들이 해갈하게 되었고 짐승들까지 물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끝까지 참지 못하는 성격을 받아 드릴 수가 없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하신다. 모세의 간절하게 간청하는 말씀이 신명기 3장 25절에 있다. 즉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 뿐만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백성들도 모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민수기 32장 11-12절). 애굽을 떠날 때 나이가 20살이 넘었던 자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다. 이들은 얼마나 많이 모세에게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 했던가! 그들은 정녕 하나님에 내리시는 축복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말았다. 다만 모세와 여호수와 갈렙 만남에 되었는데 모세마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느보산에서 120세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런데 모세의 묘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비슷한 방법으로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다. 모세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약 60마일 정도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12명을 보냈다. 이것은 알바커키에서 쌈타페 정도의 거리이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나서 사람들은 결국은 10명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루에 정복할 수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기나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모세의 탁월했던 지도력도 무참하게 짓밟혔다. 노예근성이 남아 있었던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 또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털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독자들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적힌 한심스러운 많은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을 안 읽어도 현대 교회의 양상을 보면 양식있는 신도들은 곧장 알 수 있다. 그때 두 정탐꾼으로 가담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택했더라면 그들은 그런 쓰라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가졌던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 싯딤에 진을 친 후에 두 명의 밀사를 아무도 모르게 여리고 성으로 침입시켜서 그 안의 동태를 파악했다. 그 두 밀사가 안전하게 돌아와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장 24절에 있다. 이



THE  
INGLES  
Company  
Realtors



최귀분

- O f f i c e :  
505-828-1366
- F a x :  
505-828-0773

보고는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4년 전에 보고했던 내용과도 비슷한 것이다. 그들의 동태 내용을 토대로 곧장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달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행했던 것이다. 아마도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우스꽝스런(?) 전법을 행할 때 비평하거나 비웃거나 또는 불평하면서 했더라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장군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였고 거기에는 아무런 잡음이 없었다. 또 요단강 도하 작전은 어떠했는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갈 때 기적적으로 물이 말라서 모든 병사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안전하게 도강하게 되었다. 무려 21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였다. 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새로 진을 치고 본격적인 전략을 시작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하고 말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여호수아 5장 1절 참조). 그들은 요단강이 외부의 침입을 막아 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인데 이게 웬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평지를 걷듯이 유유하게 강을 건넜으니 말이다.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다시 진을 쳤다. 여리고성에서 길갈까지는 그리 멀지 않으니까 성안에서 길갈을 빤히 내려다 볼 수 있었다. 보면 볼수록 그들은 무서워졌다. 구름떼처럼 장사진을 이루고 행진하는 사람들! 아무리 여리고 성문을 단단히 닫아 놓았더라도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고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의 사기는 땅으로 떨어졌다.

자, 여호수아 장군의 기막힌 전략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고 기상천외한 것이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포위된 성을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과 병사들이 아주 조용하게 들고 진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병사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었고 그들의 두려움을 알고 싶었다.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연 추측 할 수 없었다. 제 7일째 되는 날은 아침새벽부터 시작해서 성을 일곱 번을 들며 나

팔을 긁기 부르면 백성들에게 목청이 터져라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하였다. 몇 명이나 이 함성에 동참했을까? 60만명? 백만명?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 (다만 민수기 1장 46절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육십만 삼천오백 명이였다고 한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었다. 어떤 학자는 그때 혹시 지진이 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왜냐하면 지진 날 수 있는 Fault line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또 거기 지형이 rift valley(a valley with very steep sides, formed by cracking and slipping surfaces)였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지진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추측일 뿐이다. 나는 다른 측면에서 이 사실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 물론 내 추측이 꼭 맞는다고는 보지 않는다.

창세기에 창조된 빛과 공기와 물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영원한 빛만 있게 된다고 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창조된 빛 공기 물은 영원한 나라에는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빛만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창조된 빛은 과학적으로 전자파(Electro magnetic wave, EM wave)라고 한다. 몇 년 전에도 말했듯이 이 전자파를 횡파(Transversive Wave, TW)라고도 부른다. 이 횡파의 예로는 Radio wave, Microwave, TV signal, 전등, 현광 등, Laser, 그리고 햇빛 등이다. 이 횡파에 대조되는 종파(Longitudinal Wave)가 있는데 그 예로는 음파, 지진파, 쪼나미, 충격파(shock wave) 등을 들 수 있다. 여리고성 앞에서 몇 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이 우렁차게 불러대는 그 큰 소리가 여리고성 계곡을 따라 산울림이 되어 자연공진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충격파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내가 조사한 제 7일 째의 상황은 이러하다. 그 시기

**PARK Fine Art**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임시반 (포트폴리오준비반, 덧성반)**

강사: 박영숙  
서양화가, 갤러리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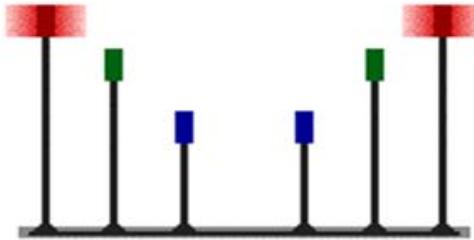
□ 자세한 안내 문의 □  
걸러리: (505)-764-1900 휴대폰: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contact@parkfineart.com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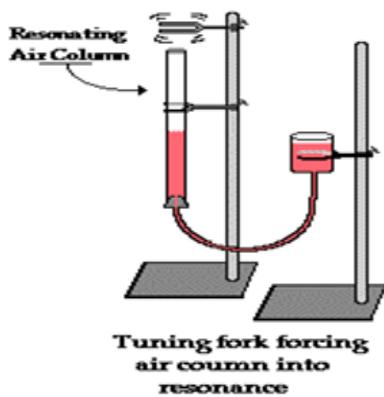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는 3, 4월로 막 우기가 끝이 나는 봄이었다고 한다. 요단강 수위가 상당히 높을 때 였다. 그런데 아무 사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잘 건넜던 것이다. 이 사실은 성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가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여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소가 바로 여호수아가 도강했던 장소라고 하니 우연도 기막힌 우연이라고 본다. 1400 여년 후에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가 기적적으로 건넜던 바로 그 장소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니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여호수아”가 동일한 뜻을 가졌다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였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복지인 천국으로 인도 하신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업적을 더 든다면 루비딤에서 아말렉 군사들을 쳐서 큰 공을 세웠고(출애굽기 17장 8-16절) 위에서 언급했듯이 12 명의 정탐꾼 중의 일원으로 가나안 땅을 수색했던 적이 있었



**The vibrations of the red bob forces the other red bob into resonance - large vibrations at the same frequ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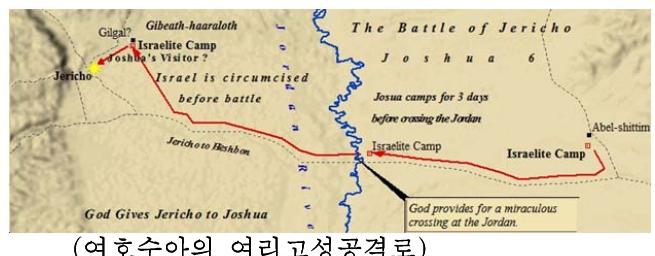
다.



위의 그림들은 자연공진의 예들이다. 첫 번째 그림이 보이는 것은 왼쪽 빨간 추(Bob)를 턱 때리면

그것이 진동하기 시작하는데 오른쪽 빨간 추가 그 무개와 길이가 왼쪽 추와 꼭 같으면 같이 진동한다는 것이다. 빨간 추의 공진 주파수가 낮은 것을 나타낸다. 또 녹색 추를 때리면 그 추의 고유 주파수로 공진이 일어난다. 둘째 그림은 tuning fork의 주파수와 air column의 주파수가 맞으면 공진이 일어나서 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무슨 연관이 되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첫째 가능성은 자연공진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둘째 가능성은 마치 폭탄이 터지면 인근에 있는 유리창들이 shock wave(충격파)로 깨지듯이 그런 충격파로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 된다. 음파가 전달되는 원리를 생각해보면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오래전에 Memorex(?) 회사의 광고에 어떤 소프라노 가수가 음이 높은 노래를 부르니까 유리컵이 깨지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다. 이것도 자연공진의 한 예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기적이 일어났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여리고성은 인간 역사상 제일 오래된 도시였고 해면(Sea level)에서 300미터나 더 낮은 곳에 있었다. 성벽은 진흙과 짚으로 구축되어 있었고 두겹으로 되어 있었다. 위에서 말했듯이 비가 많이 와서 성벽은 단단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자연공진이 일어 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다. 자연공진(Natural Resonance)이 일어났던 예가 있다. Washington주에 최초로 건설되었던 suspension bridge, Tacoma Narrows Bridge가 있었다. 그런데 1940년 11월 7일 이 다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너지고 말았다. 아무도 그 다리가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큰 이슈로 대두되었다. 여러 물리학자와 공학자들이 그 이유를 규명하느라고 고심한 끝에 생각해 낸 것이 자연공진이다. 우리 전자공학에서는 공진회로를 많이 사용한다. 이거 또 골치 아픈 것이므로 그저 말로만 한다면 공진이 일어나면 그 회로 안에 큰 에너지가 저축된다. Tacoma bridge는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서 에너지가 공급되었는데 그 다리의 길이와 중량 등이 공진 조건에 맞아서 진폭이 커져서 그만 무너졌던 것이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정탐꾼들을 여리고성 안으로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도왔던 공을 빼 놓을 수가 없다. 라합은 기생인지라 성내의 여러 가지 소식을

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호수아의 밀사 두 사람이 성안에 잠입했을 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그가 아는 소식들을 전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녀의 집은 성벽에 붙어 있어서 정탐꾼들은 붉은 뱃줄을 타고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이 사실을 밀사들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그 결과 그녀의 가족은 구조되었다. 그 외의 모든 거민들은 다 살상되었다. 또 하나 회한한 사실은 성벽이 여기저기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벽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붉은 뱃줄로 인해서 그녀의 집임을 알았다고 한다. 라합은 기생으로 아주 천한 생활을 했었지만 이후 이스라엘 남자 살돈과 혼인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 쪽 내려와서 다윗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고 전쟁을 치뤄야 할 때가 있다. 우리들의 여리고성은 어떤 것일까? 우리들의 기독교적인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자유 등을 빼았으려는 여리고성은 무엇일까? 첫째로 사람들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악한 말, 독 있는 말들이다. 요한 일서 2장 15-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 온 것이라**” 하였다. 둘째는 우리들의 욕심이다. “**욕심이 임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장 15절)”하였다. 욕심에 못 이겨 양심을 팔아먹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인간본능의 욕심 말이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하였다. 셋째로 사탄이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들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였다.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여러 장애물들에게 부디칠 때 누구를 생각하자구요??? 두말 할 것 없이 여호수아 장군을 생각하고 그를 본받으려고 노력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호수아 장군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실천해서 모세도 그렇게 가기를 소원했지만 가지 못 한 그 땅,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아름다운 가나안 복지에 승승 장군으로 들어간 것이다.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지요?



## 여호수아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 !!!

### **남겼나? 밀쳤나?** (마태 25 : 19- 30)

김정근 목사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청지기의 도리를 일깨워주는 이야 기인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주인이 면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그들의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해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12월 첫 주일이니까 이 해도 한 달이 채 안 남았네요. 교회 생활로는 사흘 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 생활은 일 주일이 하루니까요. 사흘 밖에 안 남은 을 해 신앙생활의 연말 결산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 **첫째 :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원을 말합니다.**

고전 4:7에 보면 (267쪽)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가족도 미모도, 학식도 재능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곧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우리가 지난 일 년 동안 잘 선용하여 맡겨 주신 하나님에게 +가 되게 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내게 +가 된 것은 많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가 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면 게으른 종일 것이고, 잘 활용은 했는데 자기에게만 +가 되고 맡겨 주신 하나님에게 +가 되게는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악한 종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로마 12:6-8(256쪽)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의 은사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 하는 자는 권위 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인なり**”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각기 다른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하여 충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재주도 없어.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뭐 있나, 남 만큼 공부를 많이 했나, 남들처럼 영어를 할 줄 아나, 자동차 운전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봉사를 하나?”라고 합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질러놓은 과자 부스러기나 휴지를 주울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히터를 여름에는 에어콘을 틀어 놓은 채 열려있는 문이나 창을 닫아주는 일 같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영어 못해도 운전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 둘째 :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라는 달란트입니다.

예베소 5: 16(315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 King James Version에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redeem이란 말은 노예를 돈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돈을 주고 사듯이 소중히 여겨 선용하라는 뜻입니다. Today's English Version에는 make good use of every opportunity you have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할 기회, 이웃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노치지 말고 잘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일할 기회나 봉사할 기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이 시간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얼마나 어떻게 선용했느냐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의 6/7을 나를 위해 쓰고 1/7은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옛세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이레 중 하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한 날(성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년 동안

주일을 얼마나 잘 지겼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업 때문에 주일을 잘 못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당하고 뜻밖한 듯이 말합니다. 생업이 내가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다 치고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생업을 평계 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취미 생활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자신을 위해서는 충분히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시간 까지 내가 다 가로채 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을지 모르나 이 다음에 그것이 잘되는 길이 아니요 내 영혼을 망하게 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쪼개서 주님의 일을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7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희생도 아닙니다.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흑잘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시다.

## 셋째 : 물질이라는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이라는 달란트에 대해서는 꽤 지혜롭게 관리를 하느라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머리도 쓰고 신경도 쓰면서 맡겨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시간은 1/7을 물질은 1/10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일조는 구약 시대의 율법이지 오늘에는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이사헌 회장(505-271-8031)

§ 월요일: 매월 세 번째주 금요일 오후 7:00 pm

§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 주기도회: 매주 505-239-4401

§ 성서모임: 매주 505-515-4211

### **뉴멕시코 성경교회**

천종철 목사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도강국 목사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 **拉斯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

주일예배 § 시간: 11:00 am

§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 **주님의 교회**

김희석 목사

주일예배 §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 6:00 am (Tue-Fri)

성경공부 § 매주 월요일 10:30 am (한인회관)

§ 장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기기진 목사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 11:00 am (Sunday)

수요예배 §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 5:30 am (Tue-Fri) § 6:00 am (Sat.)

### **파밍턴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진경호 목사

주일예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505-453-5461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윤정렬 목사

주일예배 § 시간: 오전 9:00 am § 시간: 오전 11:00 am

주일학교 § 시간: 오전 11:00 am

§ 장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505) 238-3551

###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 시간:

§ 장소: 405 N. Connelly St, Clovis (575)-762-4510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님도 십일조를 율법으로 제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23(4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너희가 십일조는 사소한 것까지 정확하게 드리면서 못지 않게 중요한 공의와 자비와 성실은 버렸구나. 그러나 십일조도 드리고 공의와 자비와 성실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십일조를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십일조는 그들의 생활화 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교회 안에 “No Smoking!”이란 Sign이 없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Sign을 부칠 필요가 없는 것과 꼭 같은 이치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고, 내가 내가 밤잠 안자고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모은 것이지 언제 하나님이 돈 보따리 내게 안겨 주셨느냐고 할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여전과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건강이지만 내 밤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 것 이니까 내 것이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얼마 동안만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California, Van Nuys에 있는 오래 된 제일 침례교회라는 미국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휘케트 목사님의 일화에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교회에 주일학교 유년부장을 하는 열심 있는 젊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가게를 2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착실하게 돈도 잘 벌었습니다. 교회에도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집회마다 빠짐 없이 참석하고 교회 일에도 충성스럽게 봉사 했습니다. 매 주일 \$100 씩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하면 \$1,000도 더 될 것입니다. 이 집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로 사업이 번창하여 가게가 셋으로, 넷으로, 다섯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연히 일이 많아지고 시간도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일에 열심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유년부장 직 사표를 써 가지고 목사님에게 와서 사업상 너무 바빠서 더 이상 직임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사임 하겠다고 하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 그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집사는 사업을 더 확장하고 돈도 더 많이 벌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재정부 현금 보고서를 보다가 여러 해 전에 가게 둘 가지고 있을 때 십일조 \$100 하던 이 집사가 지금은

가게 다섯을 가지고 사업도 활발한데 십일조는 변함없이 \$100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집사를 목사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신앙 생활과 건강은 잘 관리 하는지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두루 물었습니다. 그 집사는 목사님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된다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사업도 크게 확장 되고 잘 되여 감사한데 십일조는 어째 가게 둘 있을 때나 똑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가 십일조에 대한 자기 논리를 주장합니다.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십일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을 조금 벌 때는 간단 하지만 많이 벌면 쉽지 않다는 것 입니다. \$1,000 벌 때 \$100 내기는 쉽지만 \$10,000 벌 때 \$1,000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100,000 벌 때 10,000 내기는 더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교회 재정이 빠듯했지만 지금은 성도들이 많이 들어나 제가 십일조를 더 드리지 않아도 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함께 기도 합시다. 이 집사는 목사님이 자

## BBVA Compass 뉴멕시코 주에서 은행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한국말을 하는 김미경씨를 만나보세요.

**Think getting a mortgage should be  
easy? So do we.**

**Here's an overview of what we can offer you:**

- \* Professional Program financing up to \$1 million with low down payment for Doctors, Dentists, CPAs and Attorneys.
- \* First Time Home Buyer Program make no payment for 3 month, low down payment, and pay no origination or other lender fees
- \* Government Loans FHA and VA loans
- \* Construction Loans OneConstruction/Perm, Renovation/Perm and Lot Loans
- \* Primary residence and second home financing, including noncondos (no condotels)
- \* Variety of repayment terms available
- \* Super Jumbos financing available up to \$5 million
- \* Foreign Nationals (nonresidents) financing available up to \$1 million USD on single family residences and condominiums'
- \* Convenience apply onlin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n addition to simplicity and options, at BBVA Compass you'll get competitive rates and outstanding service. So whether you're buying your first or fifth home, getting your next mortgage will be easier than you ever imagined at BBVA Compass.

**Mi Kyong Kim Mortgage Banking Officer**  
**전화번호 505-206-9963**  
**mikyong.kim@bbvacompass.com**  
**www.bbvacompass.com/mortgages/mkim**  
**NMLS# 512561**

기의 주장을 이해 해 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좋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집사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기도를 안 들어 주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집사가 가게 둘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시간도 내서 주님의 일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십일조도 잘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게가 너무 많아져서 주님을 위해 시간도 내기 어려워졌고 수입이 너무 많아져서 십일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이 영혼 멸망 할까 두려우니 예전의 믿음과 열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가게 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 주시옵소서" 이 대목에서 이 집사가 황급히 목사님의 기도를 가로막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의 기도는 들어주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제부터 잘 하겠습니다. 전에 빼어먹은 것까지도 다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목사님의 기도는 못들은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개 하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십일조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십일조를 설교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재정 불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8-10(1,330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너희가 나(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고 있다".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당신(하나님)것을 도적질 하였습니까?"하고 묻는다. 십일조와 예물(현금)이 바로 그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므로 너희 모두, 너희 온 나라에 저주가 있다.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를 시험하여 보고 내가 하늘의 창고 문을 열고 너희에게 필요한 대로 복을 쏟아 놓지 않나 보아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성도들이 복 받는 길을 등지고 망 할 길로 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바른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무 유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는 길을 알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말 잘 듣는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뭐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꼭 같지 않을까요?

### 넷째 : 복음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1:14 (239쪽)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

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이 빚을 갚기 위해 일생을 복은 전도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전서 9:16 (274쪽)에서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할 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복음의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 일년 동안 복음의 달란트에 대한 결산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까?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했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활용 했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 몇 시간이나 쓰셨습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 쓴 돈은 몇 달라나 됩니까?

지난 일년간 내게 맡겨주신 건강, 재능, 시간, 물질, 복음의 달란트를 활용한 열매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모두 내놓을 때 얼마나 남겼는지? 남긴 것이 아무 것도 없는지? 혹은 본전에서 밀지지 않았는지? 마음 속으로 셈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만합니까? 아니면 1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것 같습니까? 금년도 나의 신앙생활의 연말 결산은 흑자 입니까? 적자 입니까?

###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책망을 받았을까 생각해 봅시다.

**첫째 :** 자신의 재능을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과대 평가 했을 런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5 달란트, 2 달란트를 주었는데 왜 내게는 달랑 한 달란트 뿐인가? 나도 5달란트, 적어도 2 달란트 짜리인데 왜 1 달란트 짜리 취급을 하느냐 하는 불평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각기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달란트 짜리 밖에 안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중직을 맡길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중직에 임명하지 않는다고 삐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받은 대로, 받은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1 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그에게 2 달란트, 5 달란트 남기기를 주인이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둘째 :** 주인이 너무 엄하다는 평계입니다. 이 사람은 책임 회피부터 미리 생각한 사람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평탄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삶은 소리도 듣고 잘못 되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미리 피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적은 것을 맡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째 :** 안일무사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밀천 가지고 아무리 애써봐야 성과도 별로 없을 것이니 칭찬 받기는 그렇고 그나마 잘못하면 책임은 피할 수 없으니 본전이나 지켜야겠다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1년 마지막 달에 들어선 첫 주일, 주님 앞에 겸허하게 손을 모으고 지난 한 해 신앙 생활의 열매들을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이익을 남긴 흑자 성도인가? 하나님의 기대보다 밀진 적자 성도인가? 흑자도 적자도 아닌 제 자리 걸음 성도인가?

다행히 흑자라면 자만하지 말고 다가오는 해에는 더 많이 남겨 흑자의 폭을 넓히도록 합시다. 유감스럽게도 적자라면 낙심하지 말고 내년에는 기필코 흑자를하도록 심기 일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NEW KOREA TRAVEL SERVICES** CST #2026850  
**새한여행사**

당신의 출발을  
가볍게 해드립니다.  
여행은 새한여행사의  
미소로 시작됩니다.

**대표 전화 (213)383-4988**  
**가장싼비행기! 신속한서비스!**

<b>항공권</b>	<b>호텔</b>	<b>관광</b>
• 전 세계 항공권 도매가격 • 한국행 가정 쌤으로, 서울출발 미국행(방문+이민) • 동경, 홍콩, 대만, 미남리, 등남미 가정 한요금 • 전유럽 가정 쌤 요금 할인 보유·전유럽 기차표 • 미국내선 가정 쌤으로 항성기능 • 중남미표 아주 한 요금 • 단체 특별할인요금	• 항상 필요한 시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라, 롯데, 위커향, 라마다 프라에스 호텔데리점 및 전세계 호텔예약)	• 유럽관광 • 하와이관광 • 성지순례 • 신혼여행 • 크루즈 관광 • 미국내 농 • 종 • 서부 정기관광 • 남미관광 • 디양Tour Packages • 중국 • 베트남 • 소련 비자대행

새한여행사는 전세계 모든 항공사의 공인 대리점입니다

Korean Air Asiana Airlines Singapore Airlines THAI British Airways Qantas IATA CLIA ASTA Amtrak

타주무료전화 1-(800)421-5489 FAX(213)383-6752  
2717 W. OLYMPIC BLVD., #203, L.A., CA 90006 (올림픽+뉴햄프셔, 나라는 행 진할 열)  
Website:www.newkoreatravel.com E-mail:newkoreatravel@yahoo.com

시세이도 화장품  
윤상옥 (Beauty Advisor)  
H: 890-4018  
B: 883-5900  
**SHISEIDO**  
Dillard's 백화점  
2100 Louisiana Blvd Ne Ste 155  
Albuquerque, NM 87110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com).

# 양념게장 세일

1월 28일 까지 주문마감  
한박스 \$15.00 (medium Togo box)  
주문: A-1 마켓 275-9021  
(신우주 집사)



Tip III 무우, 쑥갓, 두부, 대파를  
넣고 게장찌개로도 요리 가능.

혹시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폐업은 1월 30일 하실 수 있습니다.)



알버커키 한인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주최

## 축 개업

**Hair & Co.**  
5901 Wyoming Blvd NE Suite T  
Albuquerque, NM 87109  
(505) 797-8087

New Clients 15% Off  
Hair Cut & Style  
Shampoo & Style  
Conditioning Treatment  
Color service  
Foil Highlight or Lowlight  
Permanent Wave & Style  
Permanet Hair Straightening  
Waxing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com).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알버커키 Albuquerque

###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BQ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BQ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BQ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The Ingles Company Realtors (505-828-1366)

###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BQ (505-883-9009)

###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o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 주택용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271-2633)

###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96-0336

###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 505-797-2211  
커튼우드 505-792-5111  
산타페 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틴 505-286-3535  
[www.dahnyoga.com](http://www.dahnyoga.com)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리오란초 Rio Rancho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 #O Rio Rancho, NM 87124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io Rancho (505-994-8855)

## 클로비스 Clovis

###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 산타페 Santa Fe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 겔럽 Gallup

###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 화밍تون Farmington

### 종교 Church

화밍تون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 방 세놓음

깨끗하게 집을 사용하실 한인분께 집을 세놓으려고 합니다.

주소:  
12613 Copperwood Dr NE ABQ NM 87123

월세는 주변 시세보다 약간 더 쌉니다.

625.00+half deposit

2Br. 780 Sqft, laundry hook up ,ref. No pet ,바닥(floor)은 타일로 다 새로 깔았습니다.

꼭 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전화주시면 보여드립니다.

Tel: 213-507-7985

(우표 값이 61센트에서 64센트로 올랐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1년 동안

집에서 받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본인 이름 집 주소

64센트 우표 12장

또는 8불 짜리 check를

payable to "KUMC"로 써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receive this journal by mail, send by mail your name and address to following address with your \$8 check payable to KUMC)  
To: Voice in the Wilderness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알버커키 박영숙 화가([www.youngsookpark.com](http://www.youngsookpark.com))와 김수영 화가([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http://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의 작품들입니다.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http://www.kaanm.com)



stamp here

64 cent 우표  
 붙인 후 밖으로  
 절어서 발송

To: